

“민족문화 보존은 불자의 의무”

고속철경주통과 백지화 추진위원장 이기영 박사



“우리 역사와 문화의 보고(寶庫)인 경주에 일제 때 철도가 가로지르더니 이제는 더 안쪽으로 요란하게, 더 높은 고가다리 위로 고속철도가 지나간다니 기가 막힙니다.”

지난 19일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열린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 운동본부’ 추진대회에 후대된 이기영박사(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은 “고속철도의 경주 도심통과를 막는 일은 부처님과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고 후손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대작불사(大作佛事)”라고 말했다.

“잘못된 문화정책에 대해 우리의 정당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야 합니다. 전통문화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어떠한 음모도 좌시해선 안될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불자 모두가 보살과 같은 자원봉사자가 되어 우리문화를 지키는 일에 온갖 정성을 다할 것을 발원해야 한다고 “사상 최대의 법단”을 저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경주와 민족문화를 살리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협박이 가까운 방해공작이 시작되고 있다”면서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민족문화를 말살시키려는 이들의 추한 모습을 안타까워 했다.

“정부는 경주 도심과 남산에서 15km 외곽으로 떨어진 새로운 노선과 역사를 설계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도(古都)보존법’ ‘문화시특별법’ 등을 제정해 지역 문화재를 소중히 보존토록 하고, 시민들이 겪는 불이익을 보상해야 합니다.”

김재경 기자



비암사 복원 및 증개축 기공식

충남 연기군 소재 비암사(주지 진우스님)는 지난 18일 비암사 복원 및 증개축 기공식을 가졌다. 국보 1점과 보물 2점 지방문화재 2점을 소장하고 있는 비암사는 기공식을 계기로 극락전,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를 신·개축한다.



티벳 사추린포체 초청 법회 성료

용인 갈마산 동도사(주지 혜성스님)는 지난 17·18일 티벳 드라마 사추린포체 초청 대법회를 성황리에 봉행했다. 17일 대법회 18일 마정수기순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서봉수스님, 연수원장 법장스님, 김학규의원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동참했다.



교차로

부산 KBS홀 대강당서 법문

승찬스님(승광사 방장)은 오는 29일 오후 2시 부산 KBS홀 대강당에서 대한불교 사경회 주최로 개최되는 법회에서 법문을 한다.

‘불교문화연구’ 4집 발간

성파스님(영축불교문화연구원장)은 최근 신라 지장대사의 면모를 종합적으로 고찰한(불교문화연구) 제4집을 출간했다. (0523)82-7094

하와이 대원사 20돌 법회 참석

은제스님(태고종 전 총무원장)은 하와이 대원사 창건 20주년 기념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28일 출국한다.

국군 복제 병원에 위문품

정진스님(병상심방원 원장)은 지난 6일 국군복제병원을 방문하고 3백여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선재어린이집 개원

정우스님(선재어린이집 이사장)은 지난 20일 강남구로 부터 위탁받은 강남최대규모의 선재어린이집 개원식을 가졌다.

덕유 어린이집·경로당 개소

영달스님(덕유사회복지관 관장)은 지난 14일 덕유사회복지관 부설 롬비나 덕유어린이집과 덕유마을 경로당 개소식을 가졌다.



백련사 삼풍희생자 영혼결혼식

서대문구 흥동 태고종 백련사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삼풍붕괴사고로 숨진 삼풍백화점직원 이혜선·함명순씨에 대한 영혼 결혼식을 봉행했다. 그동안 무료합동결혼식을 치



대불청 민자 감사재총장 초청간담회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번)는 지난 16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민자 감사재 사무총장 초청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민자당 조용직·김기수의원, 대불청 정용정 부회장, 양승찬

대학생 88명에 장학금

정희수이 사장(화엄승가장학회)은 지난 15일 인천 약사사에서 대학생·고등학생 88명에게 총 2천5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수학회 공로상 수상

김용운 명예교수(한양대 수학과·본지 논설위원)는 지난 14일 부산대에서 열린 대한수학회 95년도 정기총회에서 공로상을 받았다.

방배동 지역주민 무료진료

은월스님(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사회복지회 회장)은 지난 16~18일 방배동 여래원사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한양대서 ‘...동양명명’ 강연

김종규회장(삼성출판사)은 오는 25일 한양대 백남음악관에서 ‘탈근대시대의 동양명명’을 주제로 강연한다.

게시판

▲정토불교 강좌=정토불교대학총회는 제15차 실천적 불교사상대강좌 ‘부처님 일생’을 개최한다. 10월30일부터 12월4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정토포교원. (02)379-1650~2
▲주부 부업인력 모집=개금사회복지관(관장 법산)은 가정 부업 등에 종사할 주부인력을 모집한다. (051)893-5034
▲문학상 작품모집=월간 동쪽나라(발행인 김형균)는 제

“컴퓨터는 최고의 포교사”

하이텔 불동 5대 시상 오상룡 교수



“현대에 있어 컴퓨터는 포교에 최고의 효과를 볼수있는 방법입니다. 사찰소식이나 불교이야기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무한정으로 펼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모든 사찰이 고유번호(ID)를 갖고 불교동호회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하이텔 불교동호회 5대 대표시상으로 선출된 오상룡(상주 산업대)교수는 “컴퓨터 이용에 따라 불교의 성패여부가 판가름난다”고 단언한다. 오교수는 “하이텔 동호회에는 매일 5명정도의 새 가입자가 늘고 있다”며 “이들이 컴퓨터를 통해 불교를 재미있게 공부하고 신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쏟겠다”고 말했다. 오교수는 또한 “컴퓨터의 한계가 글을 통해 만나는 것이기에 때로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가 있어 지역, 취미, 연령별로 모임을 활성화하여 자주 만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엽)

내일을 여는 불자

“미래의 불교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즐기고 있는 불교가 아니라 뛰는 불교가 되어야 합니다.”



경주 신라문화원장 진병길 씨

참신한 기획과 뜨거운 열정으로 지역교구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경주 신라문화원 원장 진병길씨(32).

그의 머리는 늘 보다 효과적이고 대중적인 포교를 위한 구상으로 가득 차 있다. 비록 고속철도 경주도심통과 반대문제와 맞물려 무기연기 되기는 했지만 오는 11월 4일 부산 삼광사 합창단, 대구 한마음선원 합창단 등 영남 지역의 우수한 합창단을 초청하여 제1회 서라벌 불교음악제를 개최기로 한 것도 그 구상들 중의 하나. 매년 봄·가을 큰스님 초청 대법회를 비롯하여 전통잡곡 선다원 개원(92년), 신라문화

액을 모금했다. 그때 스님들이 불여준 별명이 ‘화주승’이지만 현 신라문화원 운영은 늘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전통차 판매, 경주일원 안내, 후원회의 후원금, 회원의 회비 등을 합친 3백여만원의 한달수입으로는 직원 넷을 포함한 다섯명이 한달 신라문화원을 꾸려 나가는데 드

‘뛰는 불교’가 대중화의 지름길

문화·복지·기획등 다양한 활동 ‘팔방미인’

원 설립(93년), 매일 정기선다원 유적답사, 청소년 유적답사, 신라문화원 역사탐방·유적답사, 대금·꽃꽃이·다도 등의 교양강좌 개최, 계간 ‘신라문화’ 간행, 남산지도 보급, 우리차 보급, 대자원 고아원과 천우재원(양로원)등 불우시설 위문, 각종 불교행사 기획, 년 2회 청소년 문화마당 등 문화, 복지, 기획, 출간 등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그의 활동영역은 넓다.

“사상을 안가지고 하면 무엇이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계속적으로 꾸러갈 생각입니다. 적절한 직자는 발전적 의미와 마음의 여유를 내포할 수도 있습니다.” YMCA와 같은 역할도 성공적으로 해내기를 원하는 신라문화원은 불교문화도시로서의 경주를 가장 경주답게 해석하여 이를 대중들에게 인식시키는데 선구자적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윤호 기자

신심 없이 조성된 불구는 한낱 장식물에 불과하다



조용한 법당에 부처님의 고즈넉한 자비, 그 미소를 함뱍 담아 가지는 선남자여. 바람벽에 채색된 불화에서 믿음의 새싹이 돋아나는 보살들이여. 일체의 장엄구 불구에서 수천년의 신심을 함초롬히 꽃피우는 불자들이여. 이 모든 존상물, 탱화, 불구, 석물이 어찌 신물의 가피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여기저기 대량으로 제작되는 존상물의 홍수에서 우리의 믿음을 손상하게 된 적이 얼마입니까. 부처님은 거룩하고, 진리는 광명하니 ‘더 없이 높으신 생명의 자람입니다.’ 신심이 없이 조성된 불구는 한낱 장식물에 불과합니다. 존상은 흙, 나무, 돌, 쇠, 종이로 조성되어야 함은 물론이요, 그 조성에는 장인의 신심과 예술적 깊이가 함께 깃들어야 합니다.

大佛光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43 전화 : (02) 738-1117 팩스 : (02) 738-1118



이제 여기 여러 장인들이 열어 놓은 ‘대불광’에 모든 불자들이 친히 왕림하시어 존상의 신앙성을 우려러 보고, 또한 정인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무량한 공덕이 함께 할 장엄불구를 조성케 하려 하오니 ‘대불광’으로 나오셔서 일가견을 이룬 장인불자들과 상연하시기 바랍니다. ‘대불광’은 부처님을 열망적으로 신앙하는 순수장인들의 공동 광장이며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향사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장 허길용 합장